

오염의 풍랑을 헤쳐간 환경호 사공...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선진환경 건설 ... 환경정책 홍보자료집 발간

환경부 퇴직공무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환경동우회(회장 김형철)가 25년간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를 거처 간 전임 장·차관과 고위관료들이 자신들의 재직 때 겪었던 일을 모아 <오염의 풍랑을 헤쳐 간 환경호 사공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내놓았다.

1월12일 있는 환경동우회 신년교례회 및 출판기념회에서는 전임 장·차관과 함께 광결호 환경부장관과 박선숙 차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이자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최주섭 부회장 등 각계 관련인사가 참석했다.



광결호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부의 위상 정립과 함께 업무 중요성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재영 환경정책실장은 2005년 환경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2005년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국가 건설의 원년이며 건강한 국토와 쾌적한 생명 공동체 구현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또 “새집증후군 등 보다 나은 주거·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측정과 환기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5/01/18>